

# 삼국시대 국경 감시대 '탄현 봉수' 완주서 발견

전북도, 지표조사 통해  
서쪽 석축 일부 무너졌으나  
거의 온전한 형태로 보존



전북도가 최근 군산대가야문화연구소·전주문화유산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해 '탄현 봉수'가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삼국시대 국경을 감시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봉수가 완주에서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군산대가야문화연구소·전주문화유산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해 '탄현 봉수'가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봉수는 낮엔 연기로, 밤엔 횃불로써 변방의 급박한 소식을 중앙에 알리는 통신제이다. 이는 1894년 갑오개혁 때 봉수제가 폐지되면서 자취를 감췄다.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탄현(숯고개)의 서쪽 산줄기 정상부에 위치한 탄현 봉수는 현재 서쪽 석축 일부가 무너지기는 했지만, 거의 온전한 형태로 보존돼 있다. 봉수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납작한 돌을 수직을 쌓아서 축조했다. 잔존된 봉수의 규모는 길이 7m, 높이 2m 내외이다.

학계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봉수의 정확한 축조시기와 성격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지표상에서 삼국시대 기와 편이 수습되었고, 고려·조선시대 문헌기록에 봉수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삼국시대 축조·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80여 개소의 봉수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전북(장수)가야와의 관련성도 제기되고 있다. 봉수가 위치한 탄현은 삼국시대 전북지역 가야세력과 백제를 이어주는

최단 거리 교통로가 통과했던 전략적 요충지로서, 이 일대에는 다수의 산성과 봉수가 남아있다.

이 중 '탄현 봉수'는 완주·진안(금산)·장수를 잇는 봉수로의 시발점. 백제의 동향을 살피기 위한 국경 방어체계의 일환으로 전북(장수)가야가 국력을 담아 축조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의 고토(古土)였던 논산 등에서 탄현 봉수와 연계된 봉수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방증해준다.

장수가야는 옛 가야 영역 중 유일하게 봉수가 확인되고 있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삼국시대 봉수만 80여 개소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봉수제는 문헌기록을 토대로 고려 의종 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서기'에 따르면 보다 앞서 가야계 소국인 반파(伴波)가 513년부터 515년까지 기문(己文)땅(남원 운봉고원으로 비정)을 두고 백제와 전쟁을 치렀고, 이 과정에서 봉수를 운영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학계는 지금까지 반파에 대해서는 고려의 대가야라는 것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지만, 봉수가 발견되는 유일한 가야세력이 전북(장수)가야라는 점에서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의 재해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이번주 상영작 '언프리티 소셜스타' '환절기'

## 인간관계를 조망하다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인간관계를 조망하는 영화 두 편 '언프리티 소셜스타'와 '환절기'를 상영한다.

'언프리티 소셜스타'는 습관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SNS홀리 인그리드가 26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워너비 SNS스타 테일러를 만나기 위해 무작정 LA로 찾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은 SNS를 소재로 한 영화는 통쾌한 재미와 영리한 시선이 돋보인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스킵렛 위치와 '베리 굿 걸'에서 제리 역을 맡으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 엘리자베스 윌슨이 SNS스타 테일러 역을 맡아 화제가 되었다.

'환절기'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고3 학생

수현과 그의 친구 용준의 관계를 어머니 미경이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동은·정이용의 그래픽 노블 '환절기'를 영화화한 작품으로 명필름영화학교 제작 하에 작가인 이동은이 직접 연출까지 맡으며 화제를 모았다. 또 남자 배우들을 전면에 내세운 한국영화들이 대부분이었던 최근 극장가에 배종욱이 전면에 나서는 독립영화로도 주목을 받는다.

미경의 아들 수현 역에는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의 오영근 역을 비롯해 '고교 처세왕'과 '아르곤'에서 활약한 지윤호가, 친구인 용준 역은 영화 '여교사'에서 두 명의 여교사와 삼각관계에 빠진 고교생 재하 역으로 두각을 나타낸 배우 이원근이 맡았다.

/정해은 기자

## 규칙 배제 간결한 선구성



### 전북도립미술관 이금희 '행복한 보금자리'

이금희의 '행복한 보금자리'전이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오는 26일까지 열린다.

주택을 테마로 한 이 작가의 작품은 통일과 변화의 법칙이 도드라져 보인다. 열기 썰기 엮어진 집은 다양한 도형으로 변주되지만 그것들은 묘한 통일성을 이루며 독특하게 연출된다.

그는 "생활주변에 다양하게 산재해 있는 주택이라는 대상은 기존의 형상을 강조하면서 정교하게 그리려는 흔적이 보이면 비추해지기 쉽기 때문에, 규칙을 배제하고 정교한 사실 형태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표현법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작품에는 간결한 선구성도 돋보인다. 작

가는 오직 직선만으로 집들을 구성, 선의 각과 길이만으로 다양한 형태미를 만들어 가며 회화성을 완성하고 있다.

이금희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현대미술대전 심사위원, 경찰문화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 서양화부문 특선, 대한민국 현대여성 미술대전 서양화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최우수상 등 다양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상임위원 미술정책 이사, 현대여성미술협회 운영위원 및 초대작가, 은보 갤러리 대표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정해은 기자

### 지역의 문화·역사·축제 알리미를 모집합니다

익산문화재단, 내달 5일까지... 선발되면 11월까지 활동

(재)익산문화재단은 '익산문화알리미'를 3월 5일까지 모집한다.

익산문화알리미는 익산의 문화·축제·역사 등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험 후기 답사기 등을 각종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작성 및 게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문화 알리미는 3개 분과 홍보단(공연·행사, 전시·예술, 청년문화)과 1개의 시민모니터링단으로 구성된다.

신청자격은 알리미 홍보단은 익산시민 및 익산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익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

며, 시민모니터링단은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에 한한다.

신청은 익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iscf.or.kr) 알리미담당 접수 게시판에서 하면 된다.

선발된 알리미는 전문 온라인 홍보교육을 수료 후,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홍보단 활동은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인정되며(신청자 한정), 활동 종료 후 수료증이 발급된다. 우수 홍보단원에게 상장 및 소정의 상품이 수여된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